

#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

## 부산 교계 2010 새해맞이 행사 다채롭게 열려

부산의 대표사찰의 하나인 금정산 범어사 제야의 타종식을 시작으로 부산 불교계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2010년 새해를 맞은 부산시민과 불자들은 산사에서 장엄한 범종 소리와 함께 새해벽두를 열었다.

범어사주지 정어는 12월 31일~1월 1일 개최한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의 일환으로 제야의 108타종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주지 정어 스님과 범어사 스님들, 템플스테이 참가자 및 부산시민 등 800여 사부대중이 강원종각 앞마당에 모여 새해 축원기도를 올리고, 직접 타종에도 참여해 산사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이부터 2010년 대입수험생이 된 예비 고3 등 800여 명의 시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을 친 뒤, 선방에서 따뜻한 떡국을 먹고 잠선수행을 하면서 새해 첫 아침을 맞았다.

부산을 대표하는 출·재가단체인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정어, 범어사 주지)와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범어사 제야의 종 타종식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범종을 치며 2010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는 1월 6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0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및 반아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승·재가 신년하례, 2010부산불교 사업계획 발표, 화산 스님 신년사(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설동근 회장)의 봉행사, 축사, 정어 스님의 신년 법어, 정각 스님의 축원(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미륵사 회주), 축하공연 및 간편 제창, 부산불교합장단연합회의 축하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정어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것이 물질문명으로 이뤄져 욕망과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고통과 괴로움이 쌓이게 되는데 누구나 갖고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가운데 신·구·의 삼업으로 스스로 업

을 지어 고통 받고 있다. 경인년 새해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조해서 잘못 물들어진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본래 청정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법문했다.

신년하례에서는 2010년 부산불교 주요 사업계획으로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 기념사업과 연등축제 및 팔관회의 활성화가 연등축제 및 팔관회로 선정됐다. 이어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제2회 부산불교연합세미나, 제2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부산불교연합신문의 창간을 제시했고, 부산-후쿠오카간 불교결연 및 동남아 불교국가 지원사업 등 해외교류사업도 힘을 것이라 고 발표했다.

부산지역 불자기업인들의 모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 영광도사 대표)도 신년하례회를 열고, 기업인으로서의 새해 각오를 다졌다.

1월 7일 묘광선원에서 열린 이번 신년하례법회에는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前 해인사 강주)을 법사로 초청해 “새해를 맞이하는 불자기업인들의 자세”에 관해 감로법문을 들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2010도심포교 전진대법회’

## 부산불교신도회, 전법선언문 발표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의 ‘2010 도심포교 전진대법회’ 첫 번째 법사로 법륜 스님(경도회 지도법사, 평화재단 이사장)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쳤다.

1월 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계정사에서 열린 이번 법회에는 류진수 명예회장 추대식 및 배태순 신도회장 취임식, 2010전법선언문 낭독 등이 함께 마련됐다.

법륜 스님은 “혹자는 기독교는 전도의 종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일관지만, 사실 불교야말로 전법과 포교의 종교다. 불교는 여



마음에서 불법을 전하는 착하고 부드러운 종교다. 부처님은 수행을 6년간 하고, 전법은 무려 45년을 다녔던 만큼, 깨달음을 얻은 후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전법에 애쓰셨다”며 불법홍포와 수행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는 이웃종교처럼 힘의 논리로 총, 칼로서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2월 2일 해룡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3월 16일 해국 스님(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제주 남국선원장), 4월 6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5월 4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등의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병수 회장의 직전회장을 역임한 류진수 전 신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법계정사 초대 신도회장으로 배태순 회장이 추대돼 각각 임명장과 감사패를 수상했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051)362-0339

박지원 기자

# 범어사 ‘선불교문화체험특구’ 변신

## 2021년 목표로 향후 12년 종합정비계획 발표

천년고찰 범어사(주지 정어)에 455억원이 투입돼 선불교문화체험 특구로 거듭난다.

범어사는 1월 6일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 의뢰한 종합정비계획의 최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정비계획의 주요사항으로 총 4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템플스테이관, 선문화체험타운 등을 조성해 범어사를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게 된다.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1단계(2009년 8월~2011년)는 192억여 원 을 들여 산문 신축, 대광장 조성, 일제 잔재 청산 등으로 전통 기림의 재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2단계(2012~2016년)에는 168억여 원 규모의 템플스테이관과 선문화체험타운, 불교문화기념관 등을 조성한다. 3단계(2017~2021년)에는 예산 94억여원을 배정해 대설법전, 요사채 등을 조성해 경내 시설물을 증축, 개축할 예정이다.

특히, 선문화체험타운과 템플스테이관이 완공되면 범어사는 선불교문화체험특구를 지정해 선불교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범어사가 속한 금정구와 금정산 일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어사와 산내 암자, 사하촌, 금정산성 등을 묶어 선불교문화체험특구로 지정된다. 상마마을 진입로를 기점으로 동쪽에는 불교문화기념관, 서쪽에는 선불교문화체험타운이 배치되며, 각각 45억원과 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선 2006년 범어사는 금정산 일대에 2천여원을 투입 대규모 선문화체험타운을 추진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절한 부지 선정과 불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 박종철 23주기 추모제 개최

## 13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서

민주열사 박종철 23주기 추모제가 1월 13일 오후 7시부터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추모제는 부산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 부산경남출신열사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지회, 해광고교 총동창회가 공동주관한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경과보고, 여는 노래, 1987년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친구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추모사 및 추모글을 낭독한다. 이어 박종철 열사가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꽃상여타고’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노래와 부모님께 남긴 편지글이 읽힐 예정이다. 편지글에는 당시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의 진지한 고민과 삶의 의지 등이 진솔하게 담겨있다.

특히, 이번 추모제에서는 박종철 인권상 시상식도 마련된다. 2003년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해, 작년 12월에는 도한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이 받은바 있다. 유족들은 추모제에 앞서 통도사 성전앞에서 제사를 지낼 예정이다.

한편, 박종철 열사는 1964년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태어나 1984년 서울대 언어학과에 입학한 뒤, 1986년 4월 11일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했다가 구속되었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월 13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언행돼 고문폭행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현재 고인은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돼 있다.

박지원 기자

# 새싹불자에 불성 심어요

## 통도사, 어린이·청소년 겨울캠프 접수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어린이·청소년 겨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청소년들도 하여금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목을 갖추고, 예의바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17~22일(5박6일)간 진행되며, 기본적인 사찰예절과 좌선법 실참을 통한 불교명상의 이해, 마음을 밝히는 노래 선법가, 사성제로 자기문제 해결하기, 수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2차와 3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월 24~29일, 2월 23~28일

열린다. 기본적인 사찰예절을 통해 일상에서 지켜야할 예의범절을 배우고, 놀이주머니, 고무마구위떡기, 연 만들기, 우리 춤, 등산과 자연관찰 등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겨울캠프가 될 예정이다. 강사진으로는 통도사 포교국장 선혜 스님이 진행지도도를 맡고, 캠프 마지막 날 수계식에는 울원의 여러 스님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불교교육에 연수과장 해법 스님, 음악교육 및 공연은 작곡가 김건우, 전통예술 교육은 국악인 이정순 등이 직접 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055)384-7085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집합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 지역내 구독확장,
-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734 서울 중로구 안국동 175-87 6층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02)2004-8200 팩스: (02)737-0697

#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판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 수월 관음도

##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공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격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를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묶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 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운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서나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일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30%할인)